



2011년 10월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1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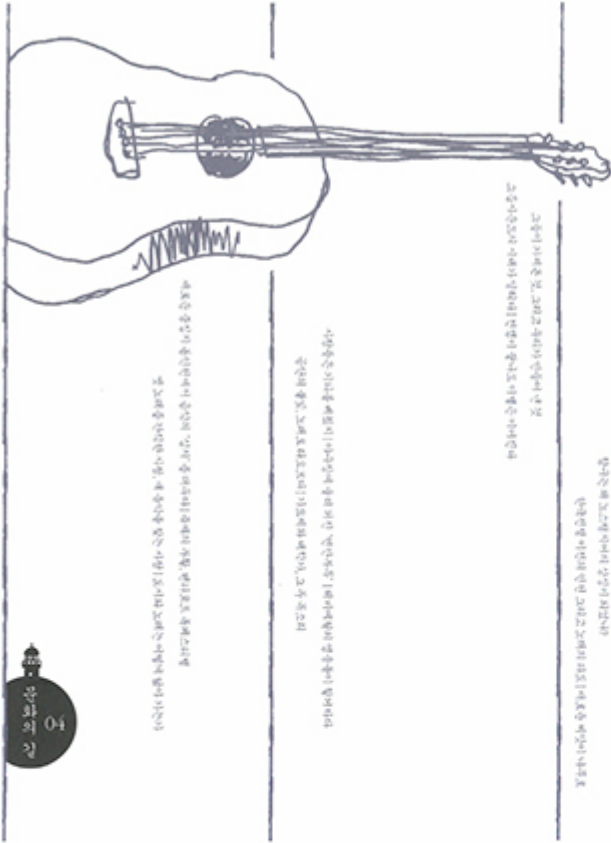
00, 00, 000 0000 0000 000 000 0000 00.





'0000'0 000 00000 00 0 100 130 000 000 15000 20300 000000 000
 0 000 0000 000 0000 000 0000. 0 300 0000 00 000 000 00000
 0 000 000 000 0 000 0 000 000 00 00 '0000'0 000000 000. 000 00
 0 100 0000 00 0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 000 00 0000 000
 000 000 0 00 000 000 0000 '0000'0 000 00000 0 0 00. 00 000 30
 000 100 000 000 0000. 00 000 00 0000 0000 0 00 00 000 0000 0 0
 0 0000. 00000 00 10000 0000 000000 00, 0000 '0000'0 0000 000 10





04
한국의 대중음악

한국의 대중음악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민중가요'라는 장르가 크게 유행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민중가요'라는 장르를 시도하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민중가요'라는 장르가 크게 유행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민중가요'라는 장르를 시도하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민중가요'라는 장르가 크게 유행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민중가요'라는 장르를 시도하며,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민중가요'라는 장르가 크게 유행했다. 이 시기에 대중음악은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

시간과 공간은 듣는 추억이 모든 가 래

글·사진·나도현



0000 0000 000 00

000 00 / 00000 / 2012. 11. 00

000 00 0000 000 0000 00 '00'의 0000. 00 '00'의 000 0 00 00000 00
 0 00 000 000. 000 000 00000 00 000 000 000 0000 000 000 00000
 00 000 0000 0 000 000 000 00 00 0000. 00 00 '000 000'의 00000,
 0000 000, 0000 000 00 00 0000. 000 000 1980000 000 000 00000 0
 00 000, 000 00 00 00000000000 0000 00 000 00 00. 0 00 0 000 00
 0000 0000 00 000 '00'의 '0000/0000 000'의 000000. '00'의 00 00 00
 000, 000 00 000 00 00 0000 00000 00 00 00 00 0000.

【○○○○ ○○】 ○(○)○○ ○○

○○A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SN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채널A '거인의 어깨' 화면캡처

안규철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안규철의 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작업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각과 설치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 공간은 그의 대표작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 출처: 국제갤러리 제공

안규철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안규철의 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작업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각과 설치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 공간은 그의 대표작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안규철의 공간'이라는 공간에서 작업했다. 그는 이 공간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각과 설치 작품을 선보였으며, 이 공간은 그의 대표작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안규철의 공간'은 그의 작업에 있어 중요한 공간이었다.

000 0 00-0 000
000 00000 000
000 00 0000 0000
000 000 0000 0000 00 000
000 0000 0000 0000
000 00000 00000 00

000 0000 000 000 000
0000 00 00 0 00000
0000 0000 00 00000 00
0000 000 000 00000 00000
0000 000 000 00 00 0 00000

000 00000 0000 0000
0000 000 00 00000 00
00 000 00 00
0000 00 00 00 00 000 00

0 0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00000 0000 00 000
000 00 000 0000
00 0000 00 000 00000

0 000 000 00000
00 00 00
000, 0 00000



일상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000 000 000 0 000 0 0 00. 00 0000 “0 0 0 00!”00 0000 0
0 000 00 0000 000 000 00 00 00 0000 0000 000 000000. 00 00 0000
(000)0 000000 000 00.

0000 0000 0000 000 0000. “0 0 00 00 00?” 00 “0 0 000 00 00 000
00?”00 000000 000 000 00 0000 000000 000 000 00 000 000 0 00.

4 0000 00 000 000 0000

000 00 0000 000 00 00. 0000 000 0000 000 0000. 000 00 000 0000
000 00 0000 000 000 0000 00 00, 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0.

0000 00 000 00 00 0000 000?
0000 00, 00, 0000 00000?
000000 0000 00 00 000 00 00000 00 000 0000?
00 00 0 00 00000 “000”0 000000 000 00 00 00 000000 000 000 000 0
0.

5 00 0000 00 000

00 0000 0000 00 000 0000, 000 0000 0000 000000 00 000 000 000 0
0 0 00 000 000 000 000 000.

00 00 00 0 00 0000 0 0000 00000?
0000 000 000 000 00 00 000?
00 0000 00 000000 000 00 000?
00 0000 000 000000 00 0 00 000?

□□□□□, □□, □□□ □□ (□□□_□□_□□□□▶)

6. □□□□ □□□□ '□□□□ □□' □□□□

□□□□ 2017.10.31 (□□□_□□_□□□□▶)

□, □□□ / □□□ □□□□□□

2017 □□□□ □□□□□□□□ <□□□□□>

2017 □□□□ □□□□□□□□ <□□□□□>

2017□ 11□ 11□(□) □□ 7□ 30□

11□ 12□(□) □□ 4□ 30□

@□□□□□□□□

□□,□□,□□/ □□□□□□3.0 □□□□ □□□

□□□□□ □□□□ □□□□ 4. □□ □□, □□□□ □□

□□□□ □□□□□ <□□□□□>



“이 공간은 사람들이 모여서 쉬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웃고 있는 공간입니다.”
 - 이명순 초대 개인전 -

* ‘이명순’의 삶은 어떤가요?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명순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입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입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활동한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입니다.



1930년에 지어진 이 집은, 1930년대 스타일의 가구와 벽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1961년에 리모델링된 이 집은, 80년대 스타일의 가구와 벽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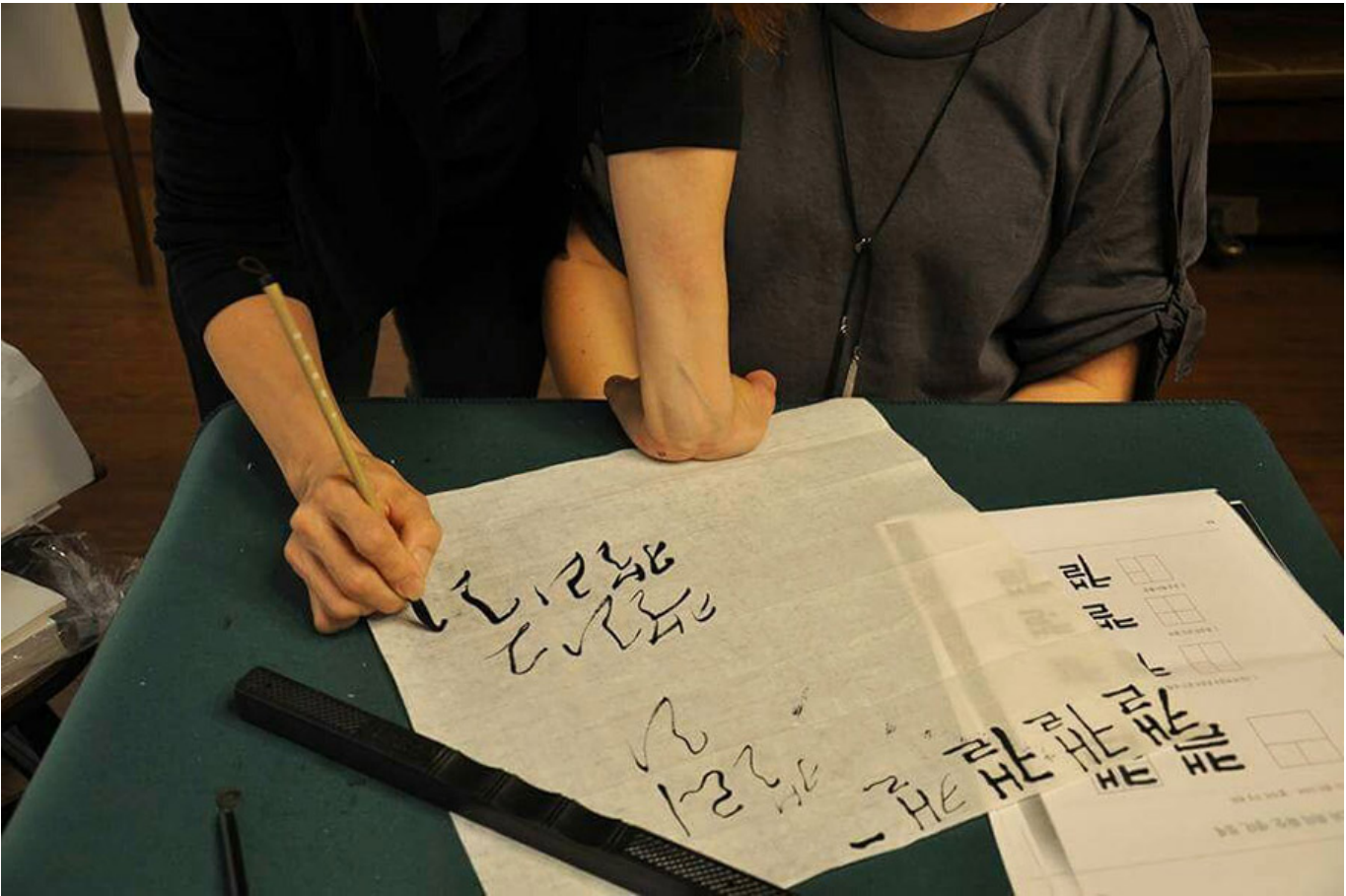
이 집은 1930년에 지어진 것으로, 1961년에 리모델링된 이 집은, 80년대 스타일의 가구와 벽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모습입니다.

이 집은 'A' 타입의 집으로, 1930년대 스타일의 가구와 벽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1961년에 리모델링된 이 집은, 80년대 스타일의 가구와 벽화를 갖추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현재 모습입니다.



2014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글의 역사' 전시를 소개하는 자리. 한글의 창제자인 고종실과 유한준의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한글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알리고, 우리 모두가 한글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는 9월 9일 <한국의 전통 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 그리고 전통 악기 연주와
악기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번 공연은 전통 악기 연주와 악기 소개를 주제로 한 공연으로, 전통 악기 연주와 악기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이 자리에는 9월 9일 <한국의 전통 음악>을 주제로 한 공연, 그리고 전통 악기 연주와 악기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문화공간 111 서당재는 전통적인 서당재의 분위기를 살려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진과 그림을 통해 서당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전통적인 서당재의 분위기를 살려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문화공간 111 서당재는 전통적인 서당재의 분위기를 살려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진과 그림을 통해 서당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전통적인 서당재의 분위기를 살려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25-15

전화번호 : 032-773-3013

www.culture111.com / 문화공간 111

문화공간 111 서당재

문화공간 111 서당재는 전통적인 서당재의 분위기를 살려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사진과 그림을 통해 서당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전통적인 서당재의 분위기를 살려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6년 3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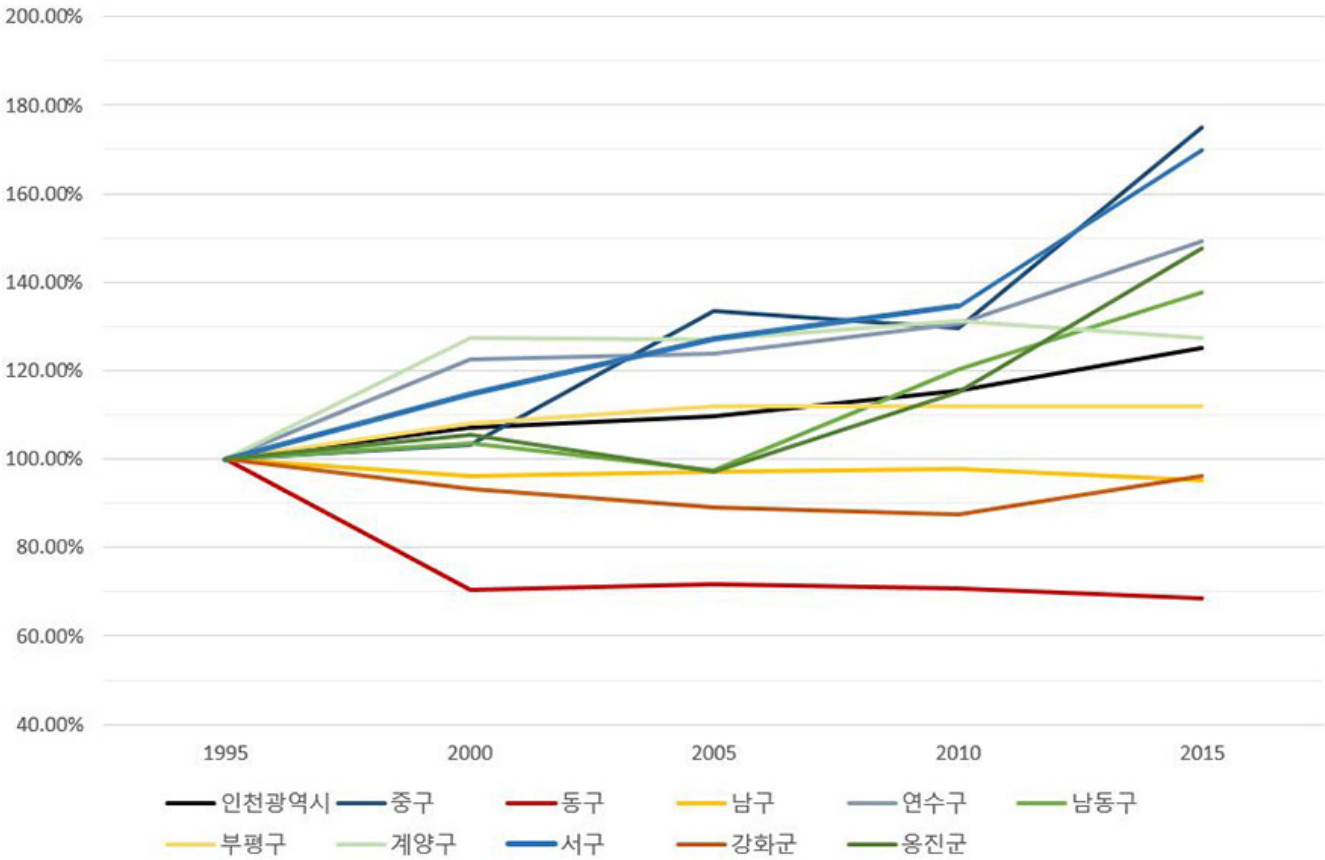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2010년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2030년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hrinking city'라는 용어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 1>은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 인구의 4%에 해당하며, TV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구,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는 지역별 인구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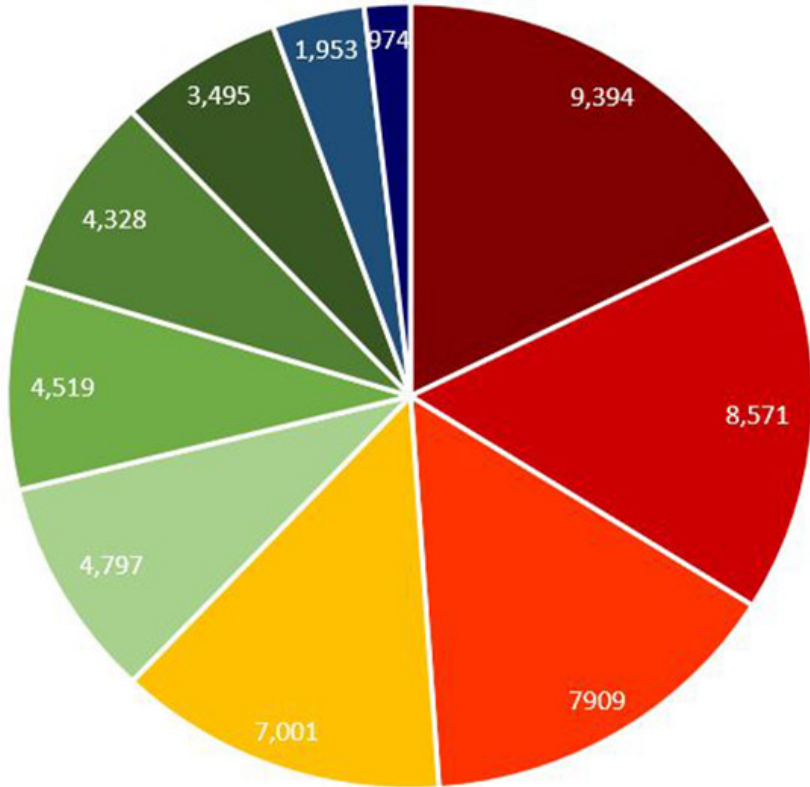


<그림 1> 1995년~2015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인구 변화 (1995년 100% 기준, 국가통계포털/인구총조사 재가공)

인구 변화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 특히 '중구'와 '서구'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인구 증가세가 뚜렷해졌으며, 특히 '중구'와 '서구'의 인구가 150% 이상 증가했다. 반면 '동구'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경제 발전과 인구 이동의 결과로 보인다.

<그림 2> 2016년 인천광역시 인·출생률 변화 추이이다. 인구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2016년 인천광역시 인·출생률 추이를 보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경제 발전과 인구 이동의 결과로 보인다. <그림 3>은 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내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그림 1>은 인구 변화 추이를 나타내며,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사망률이 출생률보다 높다. 2015년 인천광역시 인·출생률 추이를 보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경제 발전과 인구 이동의 결과로 보인다.

2016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공가 수 (국가통계포털/주택총조사 재가공)
 2016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공가 수 (국가통계포털/주택총조사 재가공)
 2016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공가 수 (국가통계포털/주택총조사 재가공)
 2016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공가 수 (국가통계포털/주택총조사 재가공)
 2016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공가 수 (국가통계포털/주택총조사 재가공)
 2016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공가 수 (국가통계포털/주택총조사 재가공)



■ 남구 ■ 부평구 ■ 남동구 ■ 서구 ■ 중구 ■ 계양구 ■ 연수구 ■ 강화군 ■ 동구 ■ 옹진군

<그림 2> 2016년 인천광역시 각 구·군별 공가 수 (국가통계포털/주택총조사 재가공)

2.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1〇

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1926,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2〇 7 〇km〇〇〇 〇〇 15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80〇〇, 〇〇〇〇〇 29% 〇〇 〇〇 1〇〇 〇〇 〇〇〇〇. 1872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〇)〇〇 〇〇 60km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 〇〇〇〇〇〇.

〇 〇〇〇〇 〇〇〇〇 〇 〇〇〇〇〇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 〇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〇〇 〇〇 〇〇 〇 〇〇〇 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 〇〇〇 〇 〇〇 〇 〇 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〇, 〇〇〇〇〇 〇〇〇

このプロジェクトは、日本の建築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また、海外からの投資も増加しています。これは、日本の経済成長の重要な要素です。

また、このプロジェクトは、日本の建築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また、海外からの投資も増加しています。これは、日本の経済成長の重要な要素です。

また、このプロジェクトは、日本の建築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また、海外からの投資も増加しています。これは、日本の経済成長の重要な要素です。



このプロジェクトは、日本の建築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また、海外からの投資も増加しています。これは、日本の経済成長の重要な要素です。

また、このプロジェクトは、日本の建築界に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また、海外からの投資も増加しています。これは、日本の経済成長の重要な要素です。



この街は、

とても静かな街です。街の雰囲気は、とても落ち着いています。街の景色は、とても美しいです。街の空気は、とても清々しいです。街の生活は、とても穏やかです。

街の歴史は、とても古いです。街の文化は、とても豊かです。街の伝統は、とても大切にされています。街の未来は、とても希望があります。街の発展は、とても楽しみです。

街の魅力を、ぜひ体験してください。街の魅力を、ぜひ体験してください。街の魅力を、ぜひ体験してください。街の魅力を、ぜひ体験してください。街の魅力を、ぜひ体験してください。

이 작품은 다양한 매체를 혼합하여 제작된 다차원적 설치 미술이다. 작품은 공간, 빛, 소리,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작품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관객의 행동에 따라 작품의 형태와 내용이 변한다. 이 작품은 관객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은 관객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작품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관객의 행동에 따라 작품의 형태와 내용이 변한다. 이 작품은 관객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AIR SHOP: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7'

<'AIR SHOP: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7' >은 다양한 매체를 혼합하여 제작된 다차원적 설치 미술이다. 작품은 공간, 빛, 소리,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자극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작품은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관객의 행동에 따라 작품의 형태와 내용이 변한다. 이 작품은 관객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윤영_Young_Yong, Beyond between Beyond_Ydong, Dimensions Variable, Brick tiles, Fake plants, Cement, Wood, Paint, 2017



〇〇〇〇, **Recycled gardening, Dimensions Variable, Objects, Plants, Tape, Wood, 2016**



□ □□□ □□ □□ □□,

**The way three trees live together, Dimensions Variable,
Wood, Pine tree, Soil, 2016**



□□, □□, □□, Camouflage, intervention, assimilation,
182×80×248cm, Vegetable, Wood, Soil, 2016



□□□, The flat room, 400×80×210cm, Wood, Floor paper, Wall



손가락 휘트니스, Finger fitness, 120×40×120cm, Tools, Fluorescent light, Wood, 2016



□□□□□, Multi Production Cart, 122×72×185,
Wood,Paint,Wheels,Fish tank,Solar panel,Motors,LED, 2015



□□□□, **Happy**
Fetch, Dimensions Variable, Mixed Media, 2015

인천아트플랫폼 2017 플랫폼 아티스트 & 오픈 스튜디오

2017 PLATFORM ARTISTS & OPEN STUDIO

Visual Arts

KANG Juhyeon 김주현
Mackerel SAFRANSKI 고희어
KWAK Eve 각이보
KEUM Nyewon 곽혜원
KIM Soonim 김순임
Delphine POUILLE 델핀 푸이레
LI Liuyang 리 리우양
BEOM Jiayong 범진용
SIM Seungwook 심승욱
AN Gyungsu 안경수
ANH Sanghoon 안상훈
CHANG Seoyoung 창서영
JUNG Seokhee 정석희
CHUNG Arong 정아롱
JUNG Haejung 정혜정
Timo WRIGHT 티모 라이트
HWANG Gyunghyun 황근현
HWANG Moonjang 황문정

Performing Arts

Dance Company MYUNG 댄스컴퍼니명
PARK Seungsoon 박승순
SEO Youngjoo 서영주
A.N.D. Theatre 앤드씨어터

Research-Criticism

KIM Hongki 김홍기
SON Songyi 손송이
LEE Joongseun 이정순
CHOI Yoonjung 최윤정

International Exchange

KURODA Daisuke 쿠로다 다이스케
Theia CONNELL 테이아 콘넬

OPENING

2017. 11. 10. FRI
6 : 30 PM

OPEN STUDIO

2017. 11. 10. FRI
-11. 12. SUN

PLATFORM ARTISTS

2017. 11. 10. FRI
-12. 17. SUN

www.inartplatform.kr



인천아트플랫폼은 2017년 8월 10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8개월간 국내외 아티스트 100여 명을 초청하여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는 11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12월 17일(일) 오후 6시까지 3주간 운영되며,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는 28개(42개)의 전시 공간이 운영됩니다.

‘오픈 스튜디오’는 11월 10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12월 17일(일) 오후 6시까지, 오픈, 전시, 공연, 강연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1, E1 전시 공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오픈 스튜디오 기간에는 28개(42개)의 전시 공간이 운영됩니다.

□□ □□.

□□ 14□□□ 16□□□ 19□□□ □□□□□ □□□ □□□□ □□ □□□ □□, □□□, □□□□□ □□□□. □□ □ □□□□□ □□ □□□ 12□~18□□□□□, □□□ □□□□ □□□ □□□□□□□ □□□(□□□□▶)□ □□ □□□ □ □□.

□□□□□□□

[□□2] □□□□□□□

□□□ '□□' □□ □□ & 11□ 16□(□) □□□□

□□□□□□□□ □□ 8□□□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22□, 12□ 6□ 2□ □□□ □□□. □□□ □□ 6□30□ □□□□□□□□□□ □□□□.

□□ □ □□□ □□□ □□(032-455-7162) or □□□(gangjwa01@naver.com)□ □□ □□ □□.

□□□ □□□□□ 16□ □□□ □□□□ □ 6□ 3□□ □□

11□ 16□ □□□ □□□ □□□ □□ □□□ □□ □□ □□. □□ □ □□□ □□ □□□□ □□□□. (□□□□□□□□ □□ □□□□ □□ □□□□□□.)

□□□□□□□

[□□3] TRIBOWL BOOK CONCERT

<□□, □□ □□ □□>


□□□□▶



여기, 나로 살아 가기

2017. 12. 9. Sat 오후 4시 **트라이보울**
 청소년 이상 누구나 신청방법 | 트라이보울 홈페이지 www.tribowl.kr '공연 예약안내'

미처 하지 못한 말



문학평론가이자 인문학 저자인 정어울 작가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방향하고 있나요? 괜찮아요, 나도 그래요.
 삶을,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을 함께 해요.

정어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 2013년 제3회 전속희문학상
 -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마음의 서재',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등 출간

작가 정어울

여기, 우리, 여행



센스 넘치는 "라디오계의 유재석" 고영배
 어떤 소소한 고민도 괜찮아요, 그와 함께라면
 여기 와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요, 노래해요.

고영배
 - 2016년 정규 3집 'CAKE', 2017년 디지털 싱글 '너를 공부해', 'Perfect Day' 발매
 - 소란 대표 브랜드 콘서트 'Perfect Day' 누적관객 1만 2천명 이상
 - [詩:선] 시 낭독 콘서트, 청춘氣UP 토크콘서트, 청춘페스티벌 등 다수의 토크콘서트 사회

'소란' 보컬 고영배

주최 | 인문학연구소 인천문화재단 트라이보울 주관 | 트라이보울 문의 | 032)760-1097 www.tribowl.kr

- □□ : 2017-12-09
- □□ : 2017-12-09 1□ 16:00
- □□ : 2□ □□□
- □□□ : □13□□□ 0□ □□ 0□
- □□/□□ : □□□□□ □□□□□□ □□□□□
- □□□□ : □□□ □□ □□(□□□□□ □□ □□)
- □□□□ : 80□
- □□ : 032-760-1097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 소개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운영되어 왔으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 소개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수업시간에 배우는 문화’ 프로그램 소개

2017년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꿈다락’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꿈다락’의 프로그램 1, 2차 프로그램을 총 12차로 진행한다.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꿈다락’ 프로그램 1차 (10월~11월, 100회)

순서	프로그램명	요일	시간
1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	월	10/16~12/4(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총 8주)
2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	화	10/17~12/5(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총 7주)
3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 <꿈다락 100회>	수	11/2~11/23(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총 4주)
4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	목	10/12~11/30(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 총 8주)
5	꿈다락 100회 기념 행사	금	10/13~12/1(매주 금요일 오후 7시~9시, 총 8주)

6	□□□ □□□□ 8□□ □□ (□□□□□□□□□□ □□□□)	□ □ □ □	□□□	10/20~12/8(□□ □□□ □□ 7□~9□, □ 8□)
7	□□□□ □□□□ □□ □ □□□ □□□□ □□□□□□ □□□□)	□ □ □ □	□□□ □ 7□	10/10~11/28(□□ □□□ □□ 2□~4□, □ 8□)

□ □□□□□□□□ ‘□□□□’ □□□□ □□ 2□ (11□~12□, □□□□ □)
[□ □□□□ □□ □□□□ ▶](#)

□□	□□□	□□	□□□□
8	□□□ □□ □□ □□ -□□ □□□□ □□	□ □	□□□ □ 2□ 11/1~12/20(□□ □□□ □□ 10□~12□, □ 8□)
9	□□ □□ □□ □□-□□□□□□□□	□ □	□□□ □□□ 11/1~12/6(□□ □□□ □□ 2□30□~4□30□, □ 6□)
10	□□□□□_□□□□ □□ □□, □□ □□ □□	□ □	□□□ □□□ 11/2~12/7(□□ □□□ □□ 7□~9□, □ 7□)
11	□□ □□ □□ □□ □□□□ (i-□□□□□□ □□□□)	□ □ □	□□□□ (I-□□□□□□) 11/1~11/29(□□ □□□ □□ 7□~9□, □ 5□)
12	□□□□ □□□□, □□□ □□□□! - □, □, □ □□□ □□ □□□□ □□ □□ (□□□□□□□□ □□□ □ □□□□)	□ □ □ □	□□□ □ 5□ 11/8~12/20(□□ □□□ □□ 7□~9□, □ 7□) □2□□□ 11□ 16□(□)

‘□ □□ □ □□□’ □□ □□ □□

□□□□□□ □□□(20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 □□□□, SNS(□□□□▶)□ □□□□□ □□□□ □□□□ □□□□ □□□□.

